

聖句

아모것도 열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
함으로 하나님께 알

國立國會圖書館
28.11.17
支那上野圖書館

政治會議の時日 및 場所提案

韓日兩國의 永遠한 平和를 爲하여

NCC 平和委員會主催

韓國問題懇談會

「우리들은 關한限 萬一 北韓
및 中共側의 會議의 構成國에
대하여 討議하고싶으면 우리들
은 應할수가 있을것이나 우리
들은 政治會議의 構成國에 對한
우리들의 立場을 固守한다. 政
治會議構成國에 關한 協定은 別
로 韓國休戰協定에 依하여 決
定되어있으며 以上 討議할것은

「우리들은 關한限 萬一 北韓
및 中共側의 會議의 構成國에
대하여 討議하고싶으면 우리들
은 應할수가 있을것이나 우리
들은 政治會議의 構成國에 對한
우리들의 立場을 固守한다. 政
治會議構成國에 關한 協定은 別
로 韓國休戰協定에 依하여 決
定되어있으며 以上 討議할것은

「우리들은 關한限 萬一 北韓
및 中共側의 會議의 構成國에
대하여 討議하고싶으면 우리들
은 應할수가 있을것이나 우리
들은 政治會議의 構成國에 對한
우리들의 立場을 固守한다. 政
治會議構成國에 關한 協定은 別
로 韓國休戰協定에 依하여 決
定되어있으며 以上 討議할것은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 允 台
發行人 田 榮 澤



人類의 生存과 感恩의 念

가을도 깊어서 점두(店頭)
에는 모든 새 싹파가 벌어져
있고 전원에는 농부들이 농사
지은 고식을 건우어 틀이기에
바쁘다. 해가 짧아지고 차차
날씨가 차지니 이 해도 저를
어전짓을 알겠고 한 해의 일
을 청산(清算)할때가 됨것을
느끼게 되며 따라서 정신적인
면에서도 명상과 반성과 감사
의 시기가 온것을 알겠다.
사람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
는것을 누가 부인하랴 사람은
부모의 은혜, 사회와 국가의
은혜, 자연의 은혜, 크게 말하
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서
살아가는것이다. 저 유물론자
사람이 자연의 혜택과 부모와
이웃의 혜택을 받지않고살수
없다는것은 부인할수없을것이다
분만 아니라 자연계나 인간
사회는 서로 불려와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결함을
보충하므로써 되어 가는것이니
거기에발전과 진화가 있는것이다
진실로 오늘 세계는 결함과
모순과 악(惡)이 가득차서
말할수없는 불행과 고난중에
신음하고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일면으로 그 결함을 채워주고
모순과 악을 수정하며 해결해
주는 일이 없다면 인류의 불
행은 다시 말할것없고 그 생
존을 유지해갈수가 없을것이다
여기에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이 있고 도움을 받은 측
에서는 같은(感恩)의 념(念)하면 다시 축복을 받아서 행

一九五三年——感謝節의 感激

明年에는祖國統一을感謝하기를祈願

민는자는 언제나 감사할 것이
다 그러나 가을은 더욱 감사
의 날이 깊어진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바
라고 기다리는 통일의 대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우리
의 욕심은 너머 컸다 하나
편서 기약하는 민족적 출혈
血)의 희생을 멈추어 주시
기 위하여 휴전을 주시고 또
게다가 우선 금년에 먹고 살
아가라고 대통령을 주셨다. 해

외에서 몸을 불리고 간신히
살아가는 우리교포에게는 과한
불행이나 사고가 없이 생활을
유지하게 하시고 곳곳이 하나
일 경배하는 교회들 허락하서
서 교회를 중심으로 형제자매
들이 서로 가까이 사귀며 하
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가 함은 다 같은 감격일 것이
다.
이미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울러 명년 감사절

에는 통일의 은혜를 뒤늦게
감사하고 물려로 사랑하는 교
포들이 많이 그리스도안으로
드러오므로 교회가 배나 발전
된것을 눈물로 감사할 수 있도
록 간절히 기도하자.
이제 우리교회 여러 동역자
들이 감사절에 지난간 한해에
은혜받은것을 다 같이 간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미에서 이제 뭇분의 간증을
소개하는바이다. (無類)

있어 버리고 없는 주의 感激

大阪教會 李宗憲

감사절을 마지하여 많이 얻
은 사람은 많은것으로 하나
개 감사하고 적게 얻은 사람
은 적은 물질로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로 감사
하는자에게 더 축복하시지 아
니하시는것을 특별가운데 나
타내신 예수님의 비유 즉 한

과부가 없는중에 극히 적은
금전으로 연보한것과 많이 있는
중에서 낸 부자의 연보)보다
파부가 한 연보를 축복하셨으
니 전난으로 많은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할것인가?
물질을 보지않고 중심을 보

시는 하나님이니 물질이 없
다하여 염려할것은 아니다 그
러나 각자가 할수있는대로 하
지않고 물질을 아끼는 사람도
감사하는것이 아닐줄 안다.
우리가 얻은 물질로 감사하
는데 국한하는것이 아니고 모
르는중에 축복하여 주시는 하
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여 보라
즉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나날
이 늘어나는 신자의 수이다.

그래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
이 앞으로 국가건에 훌륭한
힘이 될줄 안다 뿐만아니라
해방이후로부터 재류六十만의
재산이 날이 갈수록 잃어 지
금에 이르러는 그때의 삼분의
一도 되지않으며 또 유감에도
재류교포를 위한 두단체가 이
러나 八년동안 약十一억원이
는 금액을 허비하였으며 여러
가지 한일분규로 이러나는 어
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각곳에 새로운 교회
당을 세우며 새로운 신자를
얻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것이다

두가지 恩惠

熊本教會 安榮俊

感謝日을 앞두고

總會長 吳允台牧師

일년동안에 받은 은혜를 기
쁨과 즐거움으로써 마지할
謝日은 당도하였다. 感謝日에
대하여 그歷史의 由來를 찾아보
다면 여러가지 흥미있는 사실
이 많이 있을줄 아나 오직
우리와 깊은 관계를 가진 사
실 한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一九一四年第三回長老敎總會에
서 이날을 十一月第三主日後水
曜日로 定한것은 韓國에 宣敎
師가 처음到着한날이었던 까닭
이었다. 누구나 다 아는바대로
師는 아멘셀라(加里) 원두우
드(장노교) 주敎敎師인것이다.
또 한가지 아름다운點은 全國
感謝日 獻金全部는 總會傳道局에
보내여 外地傳道事業에만 使用
한것이다. 그리하여 山東, 上海

東滿, 西間島, 北滿, 羅西亞, 日
本에 散在한 同胞들에게 福音
을 傳한것이였다.
在日우리總會의 歷史의 여명기
를 되돌아보면 一九〇九年獨老
會가 韓錫普목사를 東京留學生
에게 三個月間 傳道하기로 可
決하고 파견한것이 그始作이다
그리고 在日우리總會배태일은
지금부터 四十五年前인것이다
다음해 第四回독노회總會時
百萬名傳道委員會가 報告끝난後
韓錫普목사가 東京에 留學生敎
會를 設立한것을 報告하고 印
度에도 敎役者派遣할것을 傳道
部에 一任한것이다. 그런故로
感謝日과 우리在日基督敎人은
깊은 관계가 있고 感謝日을 當
할때마다 우리도 傳道에 대한
새決心을 하지않을수 없다 해

마다 우리總會가 各敎會에서
보내는 十分의二를 感謝獻金으
로 在日우리僑胞에게 傳道하기
위하여 予算을 編成하는것은
다같이 歷史의 牙根은 由來를
전통적으로 계속하려는 의도도
包含된것이다.
在日우리總會는 母國敎會의
여명기와 비슷하다 母國敎會의
여명기독노회시대는 물론이요
第一回總會時까지도 牧師總數와
長老總數가 總代가 되었던것이
다 우리도 지금 이 계단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四十餘年前 우리先輩聖徒들이
感謝와 感激에 넘쳐받은 은혜
대로 드린 感謝日 獻金으로 우
리가 福音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보다 지지않는 熱誠과 感激
으로 感謝日을 마지하여야 하
지않을까?
그러나 現代는 世界敎會가
하나가 되어 全世界를 福音化
하기위하여 各方面으로 힘쓰는
것이다. 一九一〇년에 에디바

라에 모인第一次世界大會를 계
기로 스톡홀름에는 敎會實際方
面의 大會가 열렸고 「로잔」에
는 敎會의 敎義의 方面의 大會
가 열렸던것이다.
그리하여 「生活及事業」에 대
한 大會와 「信仰職制」大會두가
지로 世界運動은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在日우리總會는 이 두
가지性格을 所有한채 全日本에
散在한 우리同胞에게 福音을
傳하려는것이 우리의 使命이다
즉 敎會, 地方會, 總會組織으로
既成敎會組織強化로 信仰職制의
일을 하는것이며 傳道局의 活
動으로 福音宣敎의 使命을 다
하려는것이며 福音新聞으로 既
成敎會及 敎人의 信仰向上과
文書傳道의 使命을 다하려는것
이다.
우리는 좀더熱을 내어야 하겠
다 눈물의 기도와 불타는 傳
道를 가져야 하겠다. 여명기의
우리聖徒들이 全韓國을 福音化
하기위하여 初代에 早살았敎會,

이러한 하신 하나님께서 골
골도 낙심치 아니하셨다. 꾸준히
가시게 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
골로 부속한 교회가 총회
부회장이란 중직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
심으로 내사명을 다 하기에
최선을 다 하기로 결심한다.

민고구하면주신다

平野教會 丁仁壽
일본에 있는 한국교회중에 제
일 북방이 받은 교회는 우리
하노교회인데도 알고 하나
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래 하노교회는 돈도 없고
그렇듯한 인물은 없는 것이
하노교회나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모양이다. 작년 감사예배에
교회가 임하였던 것은 우리교회
도 풍금을 주시요 목사사택을
주시요 예배당을 주시요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에게 부
속을 사달라는 셈이다. 본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로서 생각하니
눈물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부양해 주신 것처럼
구원성으로 주야로 간구하였
던 간직으로 보아서 낙심할 수
밖에 없었으나 온 교인은 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名古屋教會 金德成
금년에 감사할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 어려운 중에서도 결코 바
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시련중에서도 용기와
힘을 배배나 주신 것이지요
그다음은 우리 총회내 각교회
별고있고 다 발전하여 가는
사실들이지요!

나그네들의 옥 사랑

武庫川教會 崔正沫
사람마다 새년부터는 새로운
계획이 크고 결심도 한다. 연
이나 파란세나 보면 거의 다
허무로 화하고 만다. 그리고
보면 앞날을 바라보는 자마다
걱정과 근심과 절망이 더욱
많다. 그러나 주님의 전능하신
에 임하고 잘려도 눈을 감
고 깨고 보면 거연보다 무엇
이든지 더 붙어있고 더욱 많
아져 있음을 살피어도 더욱
쉽게 살을 느껴지는 때 속절없
이 사랑받은 하나님 아버지
보양하시는 사랑을 감사하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생활을 몇해도 몇
해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는 또는 전도자는
영원도 함께 나날수 있고 일
할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거연도 나그네 금년도 나그
내 래년도 나그네일터이니 주
님은 나그네를 더욱 사랑하시
니 안심할 것이요 우리의 교회에 주
수군이 모지람은 곡물이 누르
러있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감
사할 일의 첫째이 됩니다.

過去一年의 열매

大阪西成教會 金元治
작년 감사예배 서성교회에서
는二十五명이 세례를 받았을
고 고교생, 소년소녀이었다.
는 반수는 사카이전도소의 부
인 성도였다.

사카이전도소에 속한 부인성
도들에게 대하여서는 아직 완
전히 조직되지 못한 교회에서
완전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가 하

가 韓國을 차지하게 되면 그
은 바로 日本을 侵略의 第一
步 되는 것이요 日本을 차지하
게 되면 그것은 美國을 侵略
의 第一步가 될것은 명백한
事實인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
에서 싸우고 있는 直接目的은 韓
國을 援助하는데 있다. 終局的目
的은 自己國家를 共產主義사
태로 防禦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으로 自由國家인 韓國하
여 民主主義를 實踐하는 青年들이
世界에서 自由를 막는다고 人間의
自由와 正義가 共產主義者의
侵略과 그의 奴隸로부터 벗어
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은
있는 일일 것이다.

週間時報

十月二十五日
○美政府首腦部는 도리에스
間副로 近日 英國 墨國에서
美英佛三國이 會合할 要旨
를 聲明.

十月二十七日
○리치워이 美陸軍參謀總長
樞密院로 當日, 空路來日
十月三十日
○美國務省 스튜어트는 二十
九日 美國政府는 韓國政治會
議에 出席하며 印度
出席시킬 可能性을 目下 檢
討中에 있다고 言明.

十月三十一日
○美駐美聯軍首席代表는 三十
日 하미드-國聯事務總長에게
書簡을 發送 韓國의 國
聯軍捕虜에 대한 共產黨의
殘虐行爲을 國聯總會의 議
로 할것을 正式으로 要求하
였음.

十二月二日(台北發)
○韓國과 國府는 軍事協定에
대한 意見이 李大統領과
大使間에 交換.

十二月三日(서울發)(K.P.)
○威爾大統領은 李大統領代
理로 하와이華人移民五十週年
紀念式出席大十二日空路하와이
行定.

하나님이 하신 일
川崎教會 櫻기환
한집의 장자요 처자가 있는
저에게는 극히 온전한 일본회
전직후에 있어서 가족들의 부
양을 고만두고 대년간의 신학
교생들은 한 모퉁이였다. 불
가능한 일같이 보였다. 참으로
장해와 파란이 많은 신학생들
이었다.

지금 신학교의 생활을 마치
고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
서 지나간 이것저것을 회고할
때에 감개무량하다. 이 적은
나의 거름도 「하나님이 하신

悲願の南北統一은안왔건만

還都後에맞는感謝節의기쁨

在日YMCA

朴永昌

「춘초년년 특이나 왕순귀를귀라 는 고구와같이 해마다 감사절 은 찾아오것만 三千萬의겨레 의 열망하는 비원의 南北統一 은 실현되지않어 한가닥 애상 을 느끼는것은 비단나 한사람 뿐이라 百萬신도들의 하염없는 호소와 열원은 이해도 응답되 지않고 허리가 부러진채로 一 九五三年도의 감사절을 맞이하 게 되매 더욱 비감함을 느끼 지 않을수없다 그러나 금년에 는 살벌한 남북의 전화도 잠 정적일 망정 고치고 제2차의 천도를 하여 다시금 조국의 수도를 재건부흥하게 되면서 금년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 었으니 실로 감계무량하다 그 리고 이같은 소감상태의 평화 가 찾아온것도 배후에 살어계 신 대능의 대주재자이신 하나 님의 축복의 손이 드리워지신 것으로 확신하고 더욱 감사하 는 마음이 속깊이 솟아오를을 금할수없는 바이다 더구나 정 든 조국산하를 떠나 멀리 해 외에서 마지하는 의역창랑객들 이 평강중에 감사절을 마지하

크신경문에속한일

東京敎會 沈恩澤

해마다지키는 감사절은 무엇 을 의미한인가 오곡백과가 풍 성하여 열여섯이 살게됨을, 병 고와재란에서 면케될 사업이 여의케됨을 감사하여예배와 레 물을 드리는것이 보통이다 그 러나 이런감사뿐이면 너머도 이기적이고 천박한감사다 우주 에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이세 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차 자기 리의관계가 감사의 제 일 큰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 께 미안한 일일것이다 자기 이익이 중심되어 웃고 울고 짓버리고 노하는자는 참된 감 사를 모를것이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 의 경륜과 우리 받은 구원이 그 크신 경륜에 속한 것을 알때야 참된 감사가 있을것이다, 하나님 은혜와 나 의 감사.

(一) 불평등과 모든 모순에서 신

生命의道

金禹鉉

과거 二천년 전에 지상에서 생활하시든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마태는 그의 복 음서두에서 아부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계통을이으신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 을 드러내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을위하여 죽도록충성하신 종의형상을 드러냈으며 누가복 음에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는 우리 인간과 조금도다름이 없 는 인간생활을 하신것을 보여 주었음에 대하여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과같이신 것을 힘껏 증거하였다.

이 세상은 에스겔이즉시에서 본 것처럼(卽三十七〇)해골골

기워하야 기원 一세기 전후해 서 알렉산드리아에살든 「스토아 학파의」 헬론이라는 철학자가 사용하던로고스라는 말을 빌어 서 예수의 전생을 소개하였다 요한은 헬나철학이나 헬론의 철학사상과 그리스도교를 조화 시키기위하여 이말을사용한 것 이아니었다. 다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있는 우주의 원인에 대한 막연한 관념으로 표현되어있는 용어 (用語)를 사용하야 역사적 예수야말로 영원존재자인 것을 드러내며 우주의 창조자이며 참빛이시오 생명의 실체요 은 해와 진리를 베푸시는이오 하

신중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신중하는 일이라고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十二〇四四—五〇)예수그리스도를 다만 종 교적 위인이나 성현으로만 보 는것은 제4복음에서부여 주는 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까 님이다.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아모리 위인이니 성 현이니 할지라도 가까이 사피 여보면 사색수록 결점이 드러 나는 것인데 이요한복음이 우 리에게 소개한 예수는 사피면 사색수록 점점 해보면 할수록 점점더 존경을 하게되고 우렷 어 보게되는 것을 많은 사람 의 체험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빌립의 소개를 듣고 예수를 접촉하기전에 나사렛에 서 무슨 선한것이 나쳤느냐고 멸시하는 나사렛은 친구의 강권에 못이겨서 예수를만나자

음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열심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하며(二)전도자의 길 은 고독과 빈궁의길이다 그러 나 금년에도 이길을 택한 젊 은 전도자가 일어남을 (三) 안 으로는 복음의 빛이 희미하여 지는 것같고 리기심의 세력이 지배하는 것같은 고독, 밖으로 는 유물주의 세력이 전도의 길을 방해하는 적막을 느꼈으 나 그중에서도 구원의 사실이 성 취됨을 보게 될때 감사영 광을 하나님께 돌릴수밖에없는 것이다.

안수집에참에하여

多摩川傳道所 李仁夏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 용하심을 입은대로 :」 무엇 보담도 감사할것은 도저히 셀 수 없는 자를 주께서 세워주 시고 그의 공로로 큰 직분을 받게하신것이 였다 十月十四日 은 저의 일생을 통하여서 잊 을수 없는 안수 받은 날이었 다.

저의 머리 위에 놓인 모든 선진들의 손의 무게를 통하여 위에게 내려오는「오직 그리스 도」예수의 주 되신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종되었다는 감격과 사명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이다. 특별히 이가운데 깊은감상이 마음에 사모하서 가지가지의 감사력을 느낀다 나는 그중에 한가지사 실을 말하고 저한다.

이글과 저글짜이에 흐터진양 을 찾아모으시고 거기에 교회 를 세우고 우리들의 생각에 넘치는 교회당들 허락하신 하

민족의 활동

橫濱敎會 成丁萬

금년가을은 우리나라에는 풍 년이라는 소문을들여 일본이란 외지에서 흥년을맞나도 마음이 무근함을느낀다 참으로 감사하 는마음에행복이 거하는것같다. 「공중에 나는새를보라 하신 주 님의 말씀이 무한의 위로를준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사랑하시는 까닭이다. 특히 이가운데 깊은감상이 마음에 사모하서 가지가지의 감사력을 느낀다 나는 그중에 한가지사 실을 말하고 저한다.

이글과 저글짜이에 흐터진양 을 찾아모으시고 거기에 교회 를 세우고 우리들의 생각에 넘치는 교회당들 허락하신 하

메이오博士의報告書와
細菌戰問題에對한

有姓名 美國미네소타州의 外科醫로 지금 國連美代表로 活動하고있는 팔스·데이오博士가 國連總會에서 細菌戰問題에 關하여 演說을 하였다. 演說을 하였던 周知의 사실이며 이와 對하여 「뉴욕타임즈」와 와싱톤스타紙의 社說은 要旨다. 論하였다.

共産側은 國連捕虜에게 加한 죽음의 行進과 大量處殺과 人間殺入外에 다시 人間의 墮落을 들어내는 這같은 行爲을 加하였다. 이는 美軍이 韓國戰線에서 細菌戰術을 用하는 자기네의 虛偽宣傳을 立證하기 위하여 美軍飛行士百餘名의 大하여 加장 殘忍하고 野蠻의 問을 하므로 強制로 自白하도록한 사실을 메이오博士가 國連에 提出한 報告書를 보고 알라지 아니할수 없다。

리	野蠻人이라도	報告에	依하되	共産陣에	아무도
野蠻人이라도	報告에	依하되	共産陣에	아무도	早히러워할만

마자 몇마디 대화를 하는중에
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
아이심을 확인하였고 사회의
어른과 체면손상을 염려하여서
광명한 대낮에 찾아오지 못하
고 남의눈을피하여서 발중에차
어온 니그데모는 예수에게 책
망비슷한 표훈을듣고도 그의
비범한 존재임을 인정하여서
관원들이 예수를 살해하려는
음모에대하여 대답하게 극력
범호하여 위기일발에 처하신
예수의신변을 구해내었고(七
五〇)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의 시체를 빌나도에거서 찾아
다가 유대인이 국왕을 장례하
는법대로 몰약과 친향배근을
세마포에 싸서 장사하였다(十
九〇三九) 사마리아에있는 수
가성밖에서 물을 청구하시는
예수를 보고서 보통인간으로만
보고서 “그대는유대 사람이

[illegible]

讀者의 소리

投書를 바랍
우리 신문에 대찬 오구나
불평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
면 기탄없이 간단히 써 보
내 주십시오 우리가 힘쓰고
하고 지상에 실기도 하렵니

에 依하면 온몸에는 이가 틀
곧게하고 몸의 傷處에는 고름
이 틀고 無數한 구멍기가 우물
거리고 머리와 온 몸의 털은
一年동안 빠지아니하고 목욕을
한번도 안시키고 밤에 재우지
않고 욕하고 험박하면서 신문
을 하였다。」

이러한 證言은 被害者인 飛行

士의 口술書에서 實證된 것이요
共產側에서 이 目的을 達하기
爲하여 有名한 朝鮮의 生物學
者「파바로후」씨가 實驗하기 위
하여 개와 쥐에게 行한 것과

되어서 나 사마리아여인을보고
물을 달아하느냐고 거절하던
사마리아여인은 몇마디 대화중
에서 그이가 메시아심을 발견
하고서 온 동네 사람에게 매
시아를 만났다고 전파하였고
(四〇二十九)의심 많은 도마
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았
다고 전하는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그 못자국과 창에상하신
엎구리를 만져보기 전에에는 믿
지 아니하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나타나신
예수를 뵈었을 때에「나의주시
오 나의하나님이로소이다」하고
고백한사실이야 만로 모든인간
은 예수를 사귀고접촉하는 때
에 그에게서 하나님과 같은신
성을 발견하게 되고 사랑과
진리의 화신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역역하게 드러내주
었다.

한 국 요리 법
점 만 드 는 법
가 리 찜

료 (두합 분량)	(한대를 여		
갈비 (가리)	두대 달 토막에)	호추가루	한차사시
설탕	다섯큰사시	물	세합반
간장	한합	표고	여섯조각
파	여섯뿌리	석이	여섯조각
마늘	다섯쪽	육이	열조각
깨소금	네큰사시	당근 (홍당부)	중으로한개
생강	작은것반들	실뽕	두큰사시
기름	네큰사시	계란	한개
미나리	약간		

7. 갈비두대를 열 엿섯토막에 잘라서 (고기판에서 사울적에 잘라 달라고 부탁할것) 그 토막을 잘디잘게 갈로 썰것 이니 앞뒤를 다 뼈에 같이 닿기까지 예는대 종횡()으로 잘게 예여서 놓고 (살이 떨어지는 것은 손으 로 꼭꼭 모아 붙일것)
8. 이번에는 설탕을 갈비에다가 끓고루 뿌려서 설탕이 갈 비전체에 다 묻게 해놓고.
9. 다음은 기름을 쳐서 잘 섞어 놓고.
10. 파와 마늘 생강을 곱게 이겨서간장과 함께 섞고 호추 가루와 깨소금을 함께 섞어가지고.
11. 이 약념한 간장에다가 갈비를 한토막씩 넣어 무쳐내어 냄비에 차곡차곡 담고.
12. 약념 그릇들은 불로 가시어 갈비에 붓고 화구불에 올 려놓아서 한시간쯤 끓이고.

7. 꿀을 동안에 표고와 목이를 물에 정하게 씻어서 네조각이나 혹은 두조각에 내어 벌침에 기름을 바르고 잠깐 볶아놓고.
8. 석이는 찹쌀 꿀은 불에 넣어서 손바닥에 놓고 두손으로 비벼 씻어서 맑은 물이 나도록 정하게 씻어서 넷이나 여섯으로 썰어서 기름에 잠깐씩 볶아놓고.
9. 당근을 모양 좋게 얇학하게 썰어서 남비에 놓고.
10. 계란 황백미를 얇게 부쳐서 굴파죽의 절반만큼 씩 종장방형으로 비슷비슷 썰어놓고.
11. 미나리는 초대를 부쳐서 계란 황백미 모양과 같이 썰어놓고.
12. 이번에는 간을 보아서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설탕을 더 넣어서 아주 약한불에 오십분 동안 찬찬히 끓게하고.
13. 시간이 다 되고 또 물도 거이 졸았거든 목이 표고석이 계란 (맨위에 뿌릴 약념은 조금 남겨둘것)을 넣고 두껍을 덮고 아주 식지만 끓을 정도의 불에 놓아두었다가.
14. 식사시간에 함께 모양 좋게 담고 맨위에는 남겨놓았던 계란약념과 초대와 식백을 뿌려서 상에 놓으리라.

(비 고)	갈비	한대만	가지고	뽕을	할때에는	아래예기
	북원	분양으로	할것	이나라		
갈비	한대	표고	세조각	가름		
간장	두큰사시	느타리	세조각	한큰사시		
파	세뿌리	석이	세조각	실백		
마늘	두쪽	깨소금	두큰사시	한큰사시		
생강	조금	계란	한개	마나리		
호추	조금	밀가루	두큰사시	조금		

다(그러나 지상에 내린
내것은우리에게 맡겨주실
○본지에 대한 일이 아니라
도 하고싶은 말이 있으니
적어 보내주시시오 여러분의
의사와 여론을 존중하든 의
미에서 가급적 지상에 발표
하립니다. (전진部)

김치가 저오는 동안에 아버지가
잘 술과 구.」 하면서
고 한다. 그 아버지는「아
나 할복을 게 어서 가서
가져 오너라」하고 말했다.
그에 아들들이 하는 말이
「그럼 아버지 내 김치가
오빠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아홉놈이 김치를 가
지려 간뒤에 예비는 처음엔
온바닥을 치고있다가 앞만해도
먹고 싶어서 건달수가 없었다
그래서 함순으로 이따를 막막
지면서 소리를 내면서 함순으
로 막을 막 집어 먹었다. 아
홉이 김치를 가져오니 먹구릇
의 막은 거이다. 없어졌다.

아비와 아들과 떡

어떤 곳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데 오라간만에 떡이 생겨
서 마주앉아서 놀라먹게 되었
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맞이있게 먹다가 김치생
각이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김치를 가져오라고 하니 아들
「내 부엌에 가서 김치를 가
지오는 동안에 손바닥을 딱딱
치고 계시요 그러면 내 앞잡
수는 줄 알지요 않아요?」
「그래 내 이렇게 손바닥을
칠게 어서 가져오라」하고 손
바닥을 딱딱 쳤었다。

시련의 고개 6

「신흥 기업주식회사」의 임무는 날로 발전하여 사장 윤태호는 점점 신용이 높아지고 교제가 넓어졌다.

하다가 실패하는 공장을 무조건으로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돈을 맘대로 써달라고 갖다 팔기는 사람도 있었다

은행에서는 태호의 요구라면 몇 억원이고 척척 들어주었다 그래서 태호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관계하는 사업은 무력으로 철공장 교무공장 군에 융탈하는 피복공장 장공금광까지 표면으로 들어나는 사업만 거진 실패 종이 되었다

내용으로 은근히 관계하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태호는 날마다 아츠투터 밤까지 지독히 바빴다

하루도 집에서 식구를 하고 밥을 먹는 날이 없고 날마다 연회와 교제에 몸이 골골하였

웃기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 동안에 태호는 국을 들이켜고 자리에 누자 태호가 잠들게 하기 위하여 살짝 나옴서 건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구 내 팔자야」

순이는 잠이 들어서 꿀꿀자고 있고 혼자 앉아 있는 명애는 태호의 일도 염려되려니와 월체 잘못드는 버릇이 있는태다가 이성각 저성각에 머리가 복잡해서 누를려고도하지 아니하고 한숨을 한번 지으면서 부지중 이런 소리가 나왔다

장로의 가정에서 신앙의 분위기가운데 자라난 명애는 이런 말이 입밖에 나오기가 처음이라 그리고 그런말이 어떻게 자기 입밖에 새어나왔는가 하여 스스로 놀랄지경이었다

우선 명애는 태호가 술을 먹는것이 딱 질색이었다 자기 는 아무리 사업때문에 교제상 사실은 어느 정도 술을 좋아 하는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특별한 손님을 청하지 아니하여도 집에서라도 가끔 사원을 불러 농무해서 술을 먹는것이다 술을 취하면 실없는 말이 많고 노래도부르고 춤도 추고 하면서 별 실수는 없었마는 어쨌든 명애는 술 먹는것이 딱 질색이었다

「술만 먹지 말아주었으면」 명애는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헌사람! 정말 제가 참 현 사람인줄 아는가 안다면 회개하고 새사람이 되야지 그리구 해련이 관계를 깨끗이 해야지」 명애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린다

「제가 회개양하면 언제든지 단단히 매맞을 날이 있지 한 번 단단히 혼나구 큰 매를 맞을려는가」하고 명애는 두손을 합하고 고개를 숙인다

「당신 이러다가 어쩔라고 그리시오 사람이 살구 보아야지 돈이구 회사구 다 귀한소하루받은 한시가 지나서 술이 몹시취해서 택시를 타고 와서 간신이 몸을 이끌고 들어온 태호는 몹시 토하고 두통증이 심해서 찔찔 매는것을 보고 명애는 이렇게 짜증을 내었다

「응 왜 내가 죽을가바 죽지안야 죽지않을테니 염려말아 내가 죽으면 우리 명애씨 과부 될가바 그래 나죽으면 시집가지 좋은 사람한테로 시집가지 나같이 현능하구 사는것보다 낫지 허허허」

「여보 그게다 말이라구 하시오 어서 들어가 누으시오」 명애는 공연이 격정의 말을 한마디 했다가 듣기싫은 말을 들었기때문에 태호를 자리에 눕게 하고 주방쪽으로 가서 식모를 시켜서 국을 따끈하게 데워 가져오게 한뒤에 화제를 돌려서 길에서 더러운 순이가 곧잘 귀엽게 굴고 사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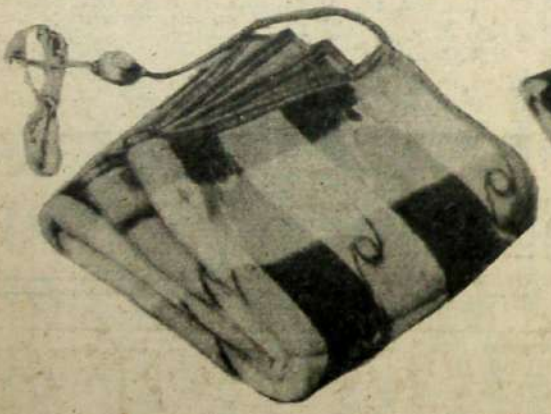
●座布團型 (50cm×50cm)
四段溫度調節 (OFF, 10W, 20W, 40W)
¥ 4,000.-



●小型 (55cm×110cm)
六段溫度調節 (OFF, 5W, 10W, 20, 40W, 80W)
¥ 6,700.-



●中型 (70cm×150cm)
六段溫度調節 (OFF, 10W, 20W, 40W, 80W, 160W)
¥ 10,000.-



●大型 (100cm×150cm)
六段溫度調節 (OFF, 15W, 30W, 60W, 120W, 240W)
¥ 15,000.-

通 産 業 省 電 氣 用 品 型 式 承 認 済

最新型電氣毛布 // 優美溫度調節器付 //
現金取引 // 製品保証付 //

ダイヤモンド電氣毛布製作所

東京都江東区白河町 2-6

(通商産業大臣製造免許第2398號)

特長

- (1) 溫度調節自由
- (2) 折疊自由
- (3) 電氣代金一日使用代金四圓以下



●婦人科檢診台用 (50cm×40cm)
四段溫度調節 (OFF, 10W, 20W, 40W)
¥ 4,200.- ビニールカバー 500.-

全国有名デパート特約店에서 求
하심 시요 地方特約店子約中
가 다로 구 進呈